

# 트럼프 경합주 강행군...바이든 조지아 공략

### 미대선 막판 치열한 득표전

### 트럼프, 열세 3개주 유세

### 바이든, 단합 메시지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11·3 대선을 일주일 남짓 남은 27일(현지시간) 경합지역을 돌며 막판 득표전에 열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중심으로 3개주를 중점무진으로 움직이는 강행군을 이어갔고,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아성으로 여겨지던 남부 조지아주 공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에 이어 네브래스카 등 3개주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미국의 6개 경합주에 포함된 곳으로 재선 고지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바이든 후보에 뒤지고 있는 조사가 대부분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급한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유세에서 열광적인 유세 일정 덕분에 "우리가 거의 모든 곳에서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슈퍼 회복'과 바이든의 '우울증' 간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규모 지지자가 모인 유세에선 여전히 다수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에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언급하며 "여러분은 선거일에 거대한 붉은 물결을 볼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이 급진 사회주의 집단이 권력을 잡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인 그래픽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또다시 공격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줄곧 마

찰을 빚은 휘트머 주지사는 최근 납치음모 사건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에 있는 법집행기관이 이들을 검거했지만 휘트머 주지사가 자신을 비난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그녀를 문제로부터 도와준 것은 내 사람들이었다"며 "그녀는 나를 계속 비난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그녀를 감옥에 가둬라"(Lock her up)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우편투표 급증으로 개표 지연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2주 동안 투표용지를 세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 대신 11월 3일에 승자가 발표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주 공략에 나섰다. 이곳은 1992년 이래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래된 상처를 활취는 '돌팔이', '사기꾼', '위선적 대중영합주의자'와 같은 인물이란 꼬리표를 붙여 공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출마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화당원들과 협력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과도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 후보가 이날 방문한 조지아주 웹스프링스는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소아마비 치료를 위해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단합의 메시지에 방점을 둔 바이든 후보는 과거 어렵던 시절인 대공황과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끈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본받겠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랜싱의 캐피털 공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 WHO총장 "한국이 팬데믹 효과적 통제 입증"

### "연대·검증 공중보건조치 준수 한국정부 협업 감사" 한글 트윗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제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경외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글로 "대한민국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경외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재확산 진앙은 프랑스 신규 확진자 급증 의료체계 붕괴 우려

### 유럽전역 사망자 급증 추세

### 각국 정부 앞다퉀 제한 조치

유럽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심화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제한조치를 재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코로나19 2차 유행 진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3417명 발생해 누적 119만8695명으로 늘어났다고 로이터통신과 신화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악기록 속출...병상부족에 의료체계 붕괴 우려=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8238명씩 늘어났다. 프랑스보다 인구가 다섯 배 정도 많은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6만99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1만명, 이달 9일 2만명, 15일 3만명, 22일 4만명 발생했다. 지난 22일엔 5만201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사망자도 지난 4월 이래 최다인 523명 나오면서 누적 3만5541명으로 늘어났다.

프랑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는 1만8978명에 이르며, 이 중 2918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실도 부족해지고 있다. 이날 입원한 환자만 2016명에 이르며,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입원자는 하루 평균 60% 이상 증가했다.

◇아직도 불기...일부 방역수칙 목살 속 추가규제 예고=프랑스 국민들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식당과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쪽 불을 번갈아 맞대고 입으로 "쭉" 소리를 내는 불기스 인사를 하는 사람도 더러 보인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정책을 조언하는 과학자문위원장 장프랑수아 델프레시는 "신



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차 유행이 1차 유행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날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해왔다. 지난 17일 통행금지령 대상 지역을 인구 69%가 거주하는 54개 주(데파르트망)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확대하기도 했다.

◇유럽 거센 확산에 사망자 급증=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벨기에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 가까이 늘어났다. 이탈리아에서도 이날 신규 사망자가 221명, 신규 확진자는 약 2만2000명 보고됐다.

러시아에서는 이날 신규 사망자가 320명 발생해 누적 2만6589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는 1만6550명 늘어난 154만 7774명으로 보고됐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 2035년 '화석연료차 절멸' 예고

### 수소전기차도 100만대로

중국에서 2035년이면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의 자동차가 팔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베이징정보 등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27일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차량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주무 부처인 공업정보화부의 '지도' 아래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차원의 장기 친환경 자동차 발전 계획의 성격을 띤다.

로드맵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에 초점을 맞춰 탄소 배출량

이 2028년 정점을 찍고, 2035년 정점 때의 80% 수준으로 내려가게 하도록 요구했다.

로드맵은 2035년 순수 전기차(BEV)와 같은 친환경차와 하이브리드 방식의 에너지 절감 차량의 중국 내 판매 비중이 각각 50%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런 로드맵이 향후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가솔린 등 화석 연료에만 구동되는 전통적 자동차는 판매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중국은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수소전기차 보급량을 100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JP모건 블록체인 전담부서 도입

### 디지털화폐 상용화 시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 JP모건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최근 도입했다고 미 CNBC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닉스'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에는 직원 100명 이상이 배치됐다. 앞서 JP모건은 미국 달러화와 1대 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는 디지털 화폐인 'JPM 코인'의 개발을 위해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 담당 간부는 이날 CNBC에 "JPM 코인이 이번 주에 한 대형 기술 기업에 의해 24시간 송금 용도로

활용돼 처음 상업적인 사용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JP모건의 초점은 국경간 대규모 송금 등 기관간 결제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400여개 은행과 법인이 참여하는 '은행간 정보 네트워크(IIN)'도 설립했다.

이에 대해 CNBC는 이런 JP모건의 행보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은 지난 21일 자사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